

대전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Survey on Apartment Dwellers' Perception of Housing Environment in Daejeon City

최 병 숙* 강 인 호** 박 정 아*** 장 혜 선**** 정 미 현*****
 Choi, Byung-sook Kang, In-ho Park, Jung-a Jang, Hye-sun Jung, Mi-h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sidents' perceptive opinions of apartment housing environment and to contribute to develop a apartment unit plan in Daejeon City. This research was performed by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464 data was collected from apartment residents lived in about 85m² unit with 3 rooms and the apartments was limited to the complexes within 3 years at Yuseong-gu and Seo-gu. By analyzing those data, findings are as follows: 1) Residents thought living room, kitchen and bathroom were important space in a unit plan. They needed a storage function in an entrance and a intermediate room, and Anbang(materbed room) so did. L-DK plan type was very preferred. 2) Sub-kitchen was needed for a refrigerator of Kinch, the location of it was related to a main kitchen and a utility. the third room was needed for library, home office and storage space. 3) The enlargement remodeling of balcony was showed livingroom balcony or personal bedrooms at the time of occupancy. They needed the balcony near a kitchen or an utility to equip a storage facility. And residents were preferred to their taste rather than a choice of interior concept package services.

키워드 : 아파트, 주거, 주거의식, 대전지역, 아파트 거주자

Keywords : Apartment House, Housing Environment, Housing Perception, Daejeon City, Apartment Resid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¹⁾

최근 지방도시의 아파트 건설은 대형건설사 위주로 분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평면도 수도권의 평면양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도시에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나름대로 지방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거주자의 의견을 고려하고자 하며, 수도권 거주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공급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입장에서 단위공간계획을 위한 사전적 의미의 POE 조사를 실시한 접근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파트 단위주호 공간 설계 시 고려할 거주자의 의견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위공간에

서 거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진실과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의 필요도, 공간배치 선호도, 안방·부엌·욕실 등의 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도, 개조 및 인테리어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설문조사도구 작성

설문조사 도구를 작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대전지 도면분석, 부동산 전문가 및 일반인 의견, 대전시에서 공동주택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사무소장 5인을 대상으로 집중 면담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의 3회에 걸친 거주자 의견 조사 항목 및 분석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조사항목을 정하여 설문도구를 작성하였다. 조사항목은 응답자 개인 및 가족사항, 주거의 규모사항, 단위주호 계획요소(전체평면구조, 주호 출입공간 배치, LDK공간연결), 단위실 계획요소(안방, 부엌/식당, 욕실, 제3공간), 개조 및 인테리어(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로 하였다.

2. 조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을 대전지역에서 최근 1-4년 이내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한 거주자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조교수&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남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Dept. of Architectural Studies, Post-Doc. Researcher

**** 충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위촉연구원

은 1차적으로 대전시내에서 최근 입주 완료아파트가 많고 집단적인 아파트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하였다. 즉, 대단위 아파트 개발지구(테크노, 노은, 복수지구)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대전시내에 다수로 분포하는 중규모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²⁾.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서 연구 목적상 전용면적 85㎡를 중심으로 하되, 3LDK의 공간구성을 갖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럼으로 85㎡전후 20~40평형 규모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단지 규모에서 평형별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인 경우는 15세대를 선정하였고, 150세대 미만인 경우는 10세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19개 아파트 단지에서 460세대의 거주자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선정된 아파트의 통·반장 및 부녀회장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통·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평형별 설문조사 세대수를 공지한 후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통·반장 및 부녀회장이 해당평형 세대에게 설문지를 배포 한 후 회수하였으며, 연구진이 이를 전달 받는 방식으로 하여 464부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7년 8월 2일~8월 13일 (12일간) 사이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응답자 일반사항

1. 개인 및 가족사항

응답자 중에서 30대~40대 연령층(80.3%), 여성(78.9%)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 가구는 맞벌이를 하지 않음(71.1%), 월소득이 300~400만원(36.9%), 4인 가족(57.8%), 학령기 자녀 있음(68.8%), 65세 이상 노인 없음(92.8%)의 비율이 높았다.

2. 주거사항

응답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로 중단지(80.0%)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분양면적이 110.00㎡(33.3평)~120.00㎡(36.3평)미만의 아파트가 47.0%,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5㎡(25.7평)에 근접한 84.00㎡(25.4평)~84.99㎡(25.7평)인 아파트가 5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용면적의 비율은 분양면적의 74%미만을 차지한 경우(37.3%)와 74~76%미만(33.9%)으로, 전용면적은 분양면적의 75% 전후 비율이었다.

3. 가족과 주거사항

가족관련 사항과 주거관련 사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은 응답자의 가족 월소득과 가족유형³⁾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용면적이 커지는 현상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⁴⁾,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전용면적이 커지는 현상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개인 및 가족사항

구 분	내 용	빈도(%)	계
연 령	20대	18 (3.9)	459(100.0)
	30대	210(45.8)	
	40대	163 (35.5)	
	50대	55(12.0)	
	60대 이상	13(2.8)	
성 별	남 자	83(21.1)	393(100.0)
	여 자	310(78.9)	
맞 벌 이	맞벌이 함	107(28.9)	370(100.0)
	맞벌이 하지 않음	263(71.1)	
월 소 득	200만원 미만	21(4.8)	442(100.0)
	200만원 - 300만원	113(25.6)	
	300만원 - 400만원	163(36.9)	
	400만원 - 500만원	92(20.8)	
	500만원 이상	53(12.0)	
가족유형	독 신	1(0.2)	453(100.0)
	2인 가족	38(8.4)	
	3인 가족	76(16.8)	
	4인 가족	262(57.8)	
	5인 가족 이상	76(16.8)	
학 령 기 자녀	있 음	253(68.8)	368(100.0)
	없 음	115(31.3)	
65세 이상 노인	있 음	25(7.2)	346(100.0)
	없 음	321(92.8)	

표 2 응답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거사항

구 분	내 용	빈도(%)	계
단지 규모	중단지(500-1000세대)	371(80.0)	464(100.0)
	소단지(500세대미만)	93(20.0)	
분양 면적	100.00㎡미만	52(11.6)	448(100.0)
	100.00-110.00㎡미만	103(23.0)	
	110.00-120.00㎡미만	211(47.1)	
	120.00㎡이상	82(18.3)	
전용 면적	84.00㎡ 미만	98(21.9)	448(100.0)
	84.00-84.99㎡	268(59.8)	
	85.00㎡ 초과	82(18.3)	
전용/분양 면적 비율	74% 미만	167(37.3)	448(100.0)
	74-76%미만	152(33.9)	
	78% 이상	129(28.8)	

4) 월소득과 전용면적을 분석하면(chi-square=29.087***)(df=8), 전용면적 84.00㎡(25.4평)미만에서는 200~300만원(30.9%) 소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84.00~84.99㎡에서는 300~400만원 소득자가, 85.00㎡초과 면적에서는 300~400만원(39.2%) 소득자 및 그 이상 소득자(45.6%)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국민주택규모 범위에 해당하는 85㎡(84.00~84.99㎡) 거주자의 소득은 300~400만원(38.2%), 200~300만원(24.3%), 400~500만원(22.0%)에 주로 분포하였다.

5) 가족유형과 전용면적 관계를 분석하면, 가족유형은 조사대상 모두에서 4인 가족의 분포가 높았으나, 85.00㎡초과 면적에서는 5인 가족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서구 복수지구에서 4개 아파트단지, 유성구 노은지구에서 8개 아파트 단지, 유성구 테크노지구에서 7개 아파트 단지였다.

3) 가족유형 중 독신가족 1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IV. 단위주호 계획요소

1. 아파트 평면에서 중요시 하는 공간

아파트 평면에서 거주자가 중요시 생각하는 1순위 공간으로 거실(66.2%)의 지적이 월등하게 높았다. 2순위 공간으로 부엌(39.7%)이, 3순위 공간으로는 욕실(16.0%)이 높았다. 중시하는 1, 2, 3순위 공간으로 볼 때 거주자는 개인공간보다 공적(公的)공간을 중시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요시 생각하는 1, 2, 3순위 공간을 종합하면, 거실(94.7%), 부엌(74.1%)이 높았고, 이것은 중요도 1, 2순위에서 높게 파악된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적이 높은 안방(29.3%)은 3순위의 욕실 공간과 그 순서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고, 욕실(25.1%)과 다용도실(23.4%)이 다음 순서로 중요시 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표 3 아파트 평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빈도(%))

구 분	1순위 (N=458)	2순위 (N=458)	3순위 (N=455)	총 합 (N=464)
안 방	32 (7.0)	39 (8.5)	63 (13.8)	134 (29.3)
부 엷	101 (22.1)	182 (39.7)	56 (12.3)	339 (74.1)
거 실	303 (66.2)	96 (21.0)	34 (7.5)	433 (94.7)
식 당	7 (1.5)	30 (6.6)	31 (6.8)	68 (14.9)
다용도 공간	6 (1.3)	34 (7.4)	67 (14.7)	107 (23.4)
욕 실	2 (0.4)	40 (8.7)	73 (16.0)	115 (25.1)
발 코 니	4 (0.9)	18 (3.9)	64 (14.1)	86 (18.9)
출입구(현관)	3 (0.7)	18 (3.9)	65 (14.3)	86 (18.9)
기 타	-	1 (0.2)	2 (0.4)	3 (0.6)

2. 현관 전실에 대한 요구

현관 혹은 전실공간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도를 파악한 결과, 신발, 우산, 운동용품 등의 수납에 대한 필요도가 4.77점으로 가장 높았다. 유모차, 자전거 보관공간에 대한 필요도 3.89점, 정원이나 화분 진열에 대한 필요도가 3.64점으로 나타났다.

3. 선호하는 LDK 배치 방식

공적공간의 중심이 되는 L,D,K 공간의 배치방식을 다음의 표5과 같이 구분하여, 선호를 파악하였다⁶⁾. 그 결과 거주자들은 거실에서 부엌과 식당이 분리되는 L-DK 배치 방식을 선호하였다(67.2%). LDK 배치방식의 선호는 20.0%, LD-K 배치방식의 선호는 12.8%로 나타난 결과로 보면, 부엌과 식당은 서로 통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DK 배치 방식 중에서는 부엌과 식당

6) 설문조사과정에서 제시한 L, D, K의 배치형식 도면은 대전시 최근 분양 아파트 평면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사례를 심으로 공간배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화 하여 제시하였고, 전체 공간크기는 동일하게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4 현관, 전실 공간 필요사항(빈도(%))

현관/전실 필요한 사항	필요도 (5점)	약간 필요 (4점)	보통 (3점)	약간 불필요 (2점)	불필요 (1점)	계	평균 점수 (SD)
수납(신발, 우산, 운동용품 등)	377 (84.7)	43 (9.7)	21 (4.7)	-	4 (0.9)	445 100.0	4.77 (0.62)
물건을 놓거나 신발 신을 때 앉 을 수 있는 긴의자	55 (12.8)	92 (21.3)	88 (20.4)	75 (17.4)	121 (28.1)	431 100.0	2.73 (1.40)
유모차, 자전거 보관공간	189 42.7%	111 (25.1)	76 (17.2)	35 (7.9)	32 (7.2)	443 100.0	3.89 (1.24)
장독공간	39 (9.2)	69 (16.4)	88 (20.9)	75 (17.4)	151 (35.8)	422 100.0	2.46 (1.36)
정원, 화분진열	145 33.5%	112 (25.9)	96 (22.2)	35 (8.1)	45 (10.4)	433 100.0	3.64 (1.30)

공간이 평면의 후면부에 배치하는 일반형의 선호도가 31.0%, 부엌과 식당 공간이 평면의 전면부에 배치하여 남향 부엌이 되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이 36.2%로 나타났다.

표 5 선호하는 L,K,D 배치방식(N=445)

구 분	L-DK 배치방식-부엌식당 분리	
	일반형	남향형
빈도(%)	138(31.0)	161(36.2)
구 분	LD-K 배치방식-부엌 분리형	
	LD-K 배치방식 부엌 분리형	LDK배치방식 부엌거실개방형
빈도(%)	57(12.8)	89(20.0)

이러한 결과는 조사아파트의 평면을 분석한 결과에서 L, D, K공간이 평면의 중앙부에 배치된 것이 77.1%였고, L-DK형 배치가 70.8%였던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는 보편적 유형(일반형)과 달리 L-DK 남향형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문조사과정에서 제시된 도면은 L, D, K 공간 전체는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나, L-DK 남향형의 경우 거실과 DK 구분에서 일반형과 달리 통로로 구분되는 공간의 손실이 없고, 이 공간이 DK공간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DK공간크기가 일반형에 비해 남향형이 크게 지각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엌 식당과 인접하여 발코니 공간이 명시된 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해석으로는 L-DK 배치(일반형)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단순히 새로운 평면의 방향을 선호하는 점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주자의 개인 및 가족사항, 주거사항 등의 내용과 L, D, K 배치방식과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나, 관련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V. 단위실 계획요소

1. 안방공간

1) 안방에 대한 태도

거주자가 평소 안방에 대해 생각하는 의견을 파악한 결과, 안방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넓은 곳'이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부부만 사용하는 곳', '장롱이나 붙박이장이 꼭 있어야 하는 곳', '침대가 꼭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안방에 대한 태도에서 거주자들은 안방을 부부공간(77.5%), 장롱이나 붙박이장이 있어야 하는 곳(79.0%)이라는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6 안방에 대한 거주자 태도(빈도(%))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합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	140(35.3)	257(64.7%)	397(100.0)
집에서 가장 넓은 곳	54(13.7)	341(86.3%)	395(100.0)
부부만 사용하는 곳	328(77.5)	95(22.5)	423(100.0)
장롱이나 붙박이장이 꼭 있어야 하는 곳	331(79.0)	95(22.5)	423(100.0)
침대 꼭 있어야 하는 곳	276(68.7)	126(31.3)	402(100.0)

2) 안방사용 실태

거주자들의 안방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부가 사용하는 경우가 88.5%로 가장 많았고, 그 용도는 주로 침실(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비율은 10% 미만 이었다.

안방의 사용자와 공간 용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Chi-square =503.211(P<.001), df=20), 부부인 경우는 침실(96.4%)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는 공부방, 서재(83.3%)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공용인 경우는 침실(84.0%) 혹은 가족실, TV시청(12.0%)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안방이 절대적인 부부 침실 공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가족실보다는 필요에 의해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전용되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안방 사용자 및 용도와 거주자 관련 가족사항과 교차 분석하여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3) 안방공간구성에 대한 의견

거주자들에게 안방의 공간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표10),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수납을 크게(49.6%)' 요구하는 의견이 높았다. 이것은 앞서 안방을 장롱이나 붙박이장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인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7 안방 사용 실태

	구 분	빈 도	%
사용자	부 부	400	88.5
	노 부 모	2	0.4
	자 녀	15	3.3
	가족공용	30	6.6
	기 타	5	1.1
	계	452	100.0
용 도	침 실	373	91.9
	공부방, 서재	13	3.2
	놀이방	2	0.5
	가족실(TV시청)	8	2.0
	취미실	1	0.2
	기 타	9	2.2
	계	452	100.0

표 8 안방 사용자와 사용 용도(빈도(%))

용도 사용자	침 실	공부방, 서재	놀이방	가족실 (TV시청)	취미실	기 타	계
부 부	344 (96.4)	2 (0.6)	-	4 (1.1)	-	7 (2.0)	357 (100.0)
노부모	-	-	-	1 (100.0)	-	-	1 (100.0)
자 녀	1 (8.3)	10 (83.3)	1 (8.3)	-	-	-	12 (100.0)
가족 공용	21 (84.0)	-	1 (4.0%)	3 (12.0)	-	-	25 (100.0)
기 타	1 (25.0)	-	-	-	1 (25.0)	2 (50.0)	4 (100.0)
계	367 (92.0)	12 (3.0)	2 (0.5)	8 (2.0)	1 (0.3)	9 (2.3)	399 (100.0)

Chi-square =503.211***(df=20), ***P <.001

그리고 안방 공간구성 계획 의견을 공간크기와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거주자 개인 및 가족사항과 교차 분석한 결과, 월소득, 연령, 학령기 자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7) 안방 공간구성 계획 의견을 공간크기와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용면적 85㎡ 수납 혹은 85㎡ 초과 규모 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높았고, 84㎡미만 거주자들은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수납을 크게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분양면적으로 파악하면, 100-110㎡미만 거주자들은 다른 분양면적규모에 비해 수납을 크게 요구하는 비율이 낮았고, 욕실을 크게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침실을 크게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00㎡미만의 규모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특히 120㎡초과에서는 현재 상태가 좋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거주자 개인 및 가족사항과 분석한 결과, 월소득, 연령, 학령기 자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의 '수납을 크게'에 대한 요구를 따르고 있었으나, 300-5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그 요구비율이 더 높았다. 200만원 미만인 경우 '욕실을 크게' '침실을 크게'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재상태가 좋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의 경우 욕실을 크게 침실을 크게, 20-40대는 수납을 크게, 50대는 현재상태가 좋다는 요구의 비율이 높았다. 학령기 자녀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수납 크게' 요구가 높았다.

표 9 안방 공간구성 계획의 의견

구 분	빈도	%
현재상태가 좋다	132	29.1
다른곳을 줄이더라도 욕실을 크게	46	10.1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수납을 크게	225	49.6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침실을 크게	51	11.2
계	454	100.0

2. 부엌 및 식당공간

1) 사용실태

‘부엌 및 식당’을 일상적인 조리·식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부 개인일(58.0%)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대화(55.4%) 이웃과 대화모임(51.7%)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부엌 및 식당에서 아이들과 놀이나 숙제돌보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 및 식당’의 주된 사용 용도 및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의 현황을 파악하면 표12와 같이 나타났다.

표10 부엌 및 식당 사용실태

부엌 및 식당 용도	가족 대화	아이들과 놀이	숙제 돌보기	주부 개인일	친구, 이웃 대화 모임
지적건수 (지적율%)	256 (55.4)	27 (5.8)	84 (18.2)	268 (58.0)	239 (51.7)

표 11 부엌 및 식당 사용 유형/가족의 식사횟수

부엌 및 식당 사용 유형	빈도	%	계
주부개인일 + 가족대화	115	25.9	445 (100.0)
주부개인일 + 친구이웃대화	134	30.1	
가족대화 + 친구이웃대화	126	28.3	
가족대화 + 주부개인일 + 친구이웃대화	70	15.7	
가족 모두 모여 식사하는 횟수			
거의 매일	136	29.7	458 (100.0)
주 3-4회정도	152	33.2	
주 1-2회정도	145	31.7	
거의 하지 않는다	25	5.5	

2) 아일랜드 작업대에 대한 선호

아일랜드형 작업대에 대해 표13과 같다. 아일랜드형 작업대를 선호하는 경우(292명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286명이 응답을 하였다. 그 결과 ‘거실과 개방되기 때문에 가족과 대화하면서 음식을 할 수 있어서’가 68.5%로 높았고, 다음으로 새로운 개념의 부엌이라 신선할 것 같아서(12.9%), 주방 작업이 편리할 것 같아서(10.5%)로 나타났다.

표 12 아일랜드형 작업대 선호도

아일랜드형 작업대 선호도	선호 (5점)	약간 선호 (4점)	보통 (3점)	약간 비선호 (2점)	비선호 (5점)	계	평균 점수 (SD)
빈도 (%)	177 (38.5)	115 (25.0)	81 (17.6)	37 (8.0)	50 (10.9)	460 (100.0)	3.72 (1.34)

아일랜드형 작업대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87명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80명이 응답을 하였다. 그

결과 ‘부엌의 음식 냄새 그릇 등이 보여 싫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5%, ‘조리중 음식냄새가 퍼져서’가 18.8%로 나타났다.

3) 김치냉장고 위치

현재 김치냉장고를 두는 곳은 60.4%가 보조주방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곳으로도 보조주방을 응답한 경우가 60.9%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모두 보조주방에 김치냉장고를 두고 싶어 하는 응답자는 4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주방에 두고 싶어 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표 13 현재/ 희망하는 김치냉장고 위치

김치냉장고 두는 곳	앞으로 희망하는 곳			계
	부엌	보조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현재 두는 곳	부엌 (5.0%)	39 (9.7%)	10 (2.5%)	69 (17.1%)
	보조주방 (11.9%)	169 (41.8%)	27 (6.7%)	244 (60.4%)
	다용도실(발코니) (5.7%)	38 (9.4%)	67 (16.6%)	91 (22.5%)
	계 (22.5%)	246 (60.9%)	67 (16.6%)	404 (100.0%)

chi-square 값=30.351*** (df=4)

***P <.001

3. 욕실 시설설비 선호

욕실에 욕조와 샤워부스 중 하나만 선택하여 설치해야 한다면, 각각의 공간에 설치하고 싶은 시설 설비를 파악한 결과 표15와 같다. 안방 욕실에서는 샤워부스 설치(67.0%), 공용욕실 역시 샤워부스(55.9%)의 요구가 높았으나, 공용과 안방욕실의 조합 유형을 보면, 안방욕실-샤워부스, 공용욕실-욕조의 선택비율이 40.7%로 높았다.

표 14 안방/공용욕실의 선호하는 시설 설비(빈도(%))

욕실 시설설비	공용 욕실		계	
	샤워부스	욕조		
안방 욕실	샤워부스	102(26.3)	158(40.7)	260(67.0)
	욕 조	115(29.6)	13(3.4)	128(33.0)
	계	217(55.9)	171(44.1)	388(100.0)

chi-square 값=89.142*** (df=1), ***P <.001

4. 제3의 공간에 대한 요구

방 1개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면, 어떤 용도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거주자는 서재나 재택근무실을 34.1%로 요구하였고, 옷방, 계절용품 등의 수납시설 공간을 29.9%로 요구하였다.

표 15 제3의 공간에 대한 요구

방1개의 용도를 바꿀시 원하는 공간	빈도	%
서재, 재택근무실	155	34.1
미디어룸/AV룸	42	9.2
수납시설(옷방,계절용품)	136	29.9
헬빙실(건강관리실, 취미실)	85	18.7
현재상태 그대로	37	8.1
계	455	100.0

VI. 개조 및 인테리어

1. 발코니 확장 현황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발코니 중에서 확장한 발코니를 파악한 결과, 거실과 안방이외의 방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확장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부엌과 안방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확장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거실 발코니의 확장 빈도가 높았고(70.5%), 다음으로 작은방(58.5%)과 중간방(54.4%) 순으로 나타났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공간은 부엌(85.0%)과 안방(78.4%)의 빈도가 높았다. 발코니를 확장한 시기를 파악하면, 입주 후 바로(80.1%)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코니 공간 이외 아파트 내부 생활공간을 개조한 곳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86.3%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들의 개조가 발코니 공간 확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공간

구분 및 내용	안방 발코니	중간방 발코니	작은방 발코니	거실 발코니	부엌 발코니	원하지 않음
현재	확장	52 (21.6)	131 (54.4)	141 (58.5)	170 (70.5)	36 (15.0)
	확장하지 않음	189 (78.4)	110 (45.6)	100 (41.5)	71 (29.5)	204 (85.0)
	계	241 (100.0)	241 (100.0)	241 (100.0)	241 (100.0)	240 (100.0)
앞으로	확장	9 (19.6)	18 (38.3)	24 (51.1)	32 (68.1)	14 (29.8)
지적(적용)						1 (2.2)

2. 발코니 확장 희망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공간을 파악한 결과 거실과 작은방 발코니의 확장을 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방과 부엌의 확장을 원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 결과는 앞서 발코니 확장실태와 같은 결과임을 볼 때 거주자들은 거실과 작은방 발코니는 확장을 원하지만, 안방과 부엌은 원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다용도실 발코니 개선사항

부엌/식당 인접 다용도실용 발코니를 개선한다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납설치에 대한 요구(44.1%)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구는 전용면적 규모가 작을 때 더 높았다. 다음으로 세탁, 쌀, 식품류 저장 및 김치냉장고 설치, 세탁시설, 쓰레기 임시보관시설 등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

아파트 분양시 바닥/벽/천장 마감 및 조명 인테리어를 패키지로 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선택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내 취향대로 따로 하고 싶다가 48.5%였고, 선택하겠다가 37.7%로 나타났다. 패키지 선택을 할 경우 적용 공간을 파악한 결과, 거실에 적용하고 싶어하

는 비율이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7 다용도실 발코니 개선사항(빈도(%))

개선사항	깔끔하게 수납	하리설치	가스레인지보조주방	쌀, 식품류 저장장치	식재및냉설	세탁(손크기,기등)설치	쓰레기시관설	레이모시	중응답	계
전용면적										
84㎡미만	46 (47.4)	6 (6.2)	15 (15.5)	15 (15.5)	12 (12.4)	3 (3.1)	97 (100.0)			
85㎡수렴	117 (44.8)	15 (5.7)	35 (13.4)	40 (15.3)	39 (14.9)	15 (5.7)	261 (100.0)			
85㎡초과	30 (37.5)	8 (10.0)	16 (20.0)	13 (16.3)	10 (12.5)	3 (3.8)	80 (100.0)			
계	193 (44.1)	29 (6.6)	66 (15.1)	68 (15.5)	61 (13.9)	21 (4.8)	438 (100.0)			

chi-square 값=6.326 (df=10) p=.787

표 18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 여부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	선택 하겠다	내 취향대로 따로 하고 싶다	선택하지 않겠다	계
빈도 (%)	167 (37.7)	215 (48.5)	61 (13.8)	443 (100.0)

거주자들이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은 실용, 기능적인 스타일(32.5%)과 친환경, 내추럴 스타일(31.1%), 현대적, 감각적 스타일(23.0%)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 30, 40대 연령층은 실용, 기능적 인테리어 스타일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친환경, 내추럴 스타일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현관과 전실,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제3의 공간에서 수납의 해결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평면적 해결이 가장 필요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방 공간은 권위, 상징의 공간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부부 공간으로 계획 접근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보편화된 김치냉장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엌보다는 연계공간의 보조주방, 다용도실의 후면 발코니로 계획하여 확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함이 필요하다. 계획 시 발코니 확장은 전면의 거실 및 안방을 제외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진영 외(2004). 아파트 주부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가사작업 공간에 대한 의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2호
- 박남희 외(2006). 브랜드 아파트의 평형별 평면계획 내용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3호
- 오혜경 외(2001). 고급형 아파트의 평면 구성 특성 및 실내디자인 경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호